

지역 소식통

2023년 제2회 김제시 청소년의 날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제2회 김제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 시민문화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500여명의 청소년 및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LDA 덴스팀의 오픈닝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은 개회선언, 모범청소년 시상, 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등으로 이루어졌고, 2부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7개팀의 공연 및 체임버스 운영, 초정가수 래퍼 수퍼비의 공연으로 청소년 및 가족들까지도 모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식조리실무자 양성과정 일자리협력망 회의 개최

김제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최근 여성가족부 지원 직업교육훈련인 한식조리실무자 양성과정의 취업연계 지원 및 구인업체 의견수렴을 위해 관내 유관업체 담당자와 일자리협력망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가족사랑요양병원, 효드림요양병원, 늘찬재활주거보호센터, 어울림푸드, 이비사탕어린이집, 프코아어린이집, 사과나무어린이집, 행복나무어린이집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직업교육훈련생 수요를 일자리연계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잠복결핵검역 무료 검진

김제시 보건소는 6월부터 결핵을 사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돌봄 시설 취약계층 중 70여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역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몸 안에 존재하지만 결핵균이 활동 및 증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전염력이 없는 상태이나, 언제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만경강 · 호남평야 비경 ‘한눈에’

완주 문화역사전망대 ‘청사진’

군 · 우석대 상생협력 일환 ‘W-SKY23’ 밀그림 제시

완주군의 문화·역사를 한 번에 이해하고 만경강과 호남평야 등 국내 최고의 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완주 문화역사전망대’의 청사진이 위용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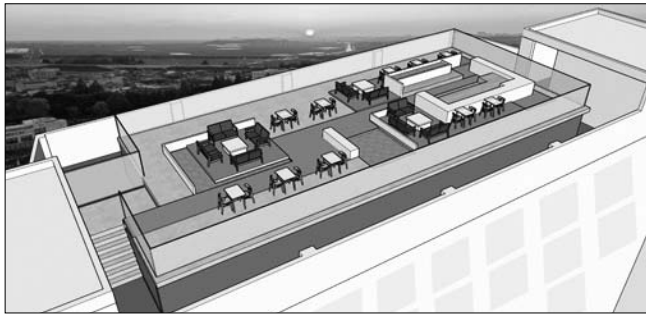
완주군에 따르면 삼례읍에 있는 우석대 분관 23층 옥상을 활용하는 ‘완주 문화역사전망대 조성 보궐계획’을 지난 29일에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우석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조법종 우석대 교수의 가칭 ‘너블유스카이(W-SKY) 23 누리마루’의 ‘완주군 문화역사 전망대와 복합전시관’의 구체적인 밀그림을 제시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우석대 분관 23층 옥상에 들어설 전망대는 옥상공간을 활용해 만경강과 호남평야, 전북관역 조망이 가능한 야외 루프탑기둥 형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넓은 통유리창을 활용한 글라스 타워 전망대나 야외 개방형 루프기둥 등 2가지 방안이 검토 중이다.

분관 23층 내부에는 호남평야와 전북관역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에서 문화역사 전시와 각종 행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만드는 ‘완주 문화역사 복합전시관’을 조성하게 된다. 무대와 계단형·평면형 좌석, 카페 등이 들어서서 8개의 조망창을 통해 만경강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과 우석대는 완주 문화역사전망대는 W-SKY23 누리마루’의 활성



완주 문화역사전망대 개념도

(사진=완주군청 제공)

화를 위해 삼례문화예술촌과 비비정을 연계하고,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등 대중교통 연계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석대는 오픈도서관 등 주민개방형 캠퍼스를 조성하고, 사회적 농업대학과 식품연구자 학습대학, 수소산업진흥 학습대학 등 완주군과 함께 다양한 신규 이벤트를 개발해 전망대 조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망대는 다음 달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오는 10월경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지자체와 대학이 손잡은 국내 최최이자 만경강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가 연내에 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국내에는 장흥 정남진 진도 세방나조, 태안군 만리포와 영목항 서늘동대문구 스타버스 경동 1900점, 해남 평평 등 여러 전망대가 다양한 콘셉트를 제공하며 관광객을 무한 흡입하는 표지석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학과 지역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상생 협력하는 모델은 W-SKY23 누리마루’가 최초이다.

특히 한반도 금속문화의 핵심지이자 마한역사의 태동지,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 삼남대로의 분기점 로컬푸드창발지, 전북 대표 문화관광지 대한민국 1등 경제도시 지향 등 급격히 높아진 완주군의 위상에 걸맞은 이정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보인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대학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만경강과 호남평야, 전북관역을 둘러볼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전망대를 만들어 1천만 관광객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변 도로 연결과 주차장 확보 등 관광객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확충 등 입체적인 준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조법종 교수는 “완주군은 2100년 전 최첨단 금속기술의 태동지이자 봉황과 용이 웅비하는 형세를 갖춘 군·현대 육상교통의 중심지”라며 “최근에는 제2수도권인 충청지역의 연담도시이자 역동적인 산업도시로 도약하고 있어 문화역사전망대가 새로운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부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김제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실시간 관리

김제시가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의 합계가 10톤 미만인 4·5층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 등의 가동정보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 그린링크)으로 전송되며, 현장방문 없이도 원격으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

부착대상 방지시설은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6개의 방지시설이며, 측정기기의 종류로는 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등을 부착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신고한 4종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부착해야 하며,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또한 김제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로 설치비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설치비용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IOT 관리시스템을 통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원격으로 관리하여 김제시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인구 순이동자 수’ 올해 1분기 호남 최고치

41개 시·군·구 중 호남 전출초과 속에서 독보적 정주여건 개선·인구유입 여건 등 복합 요인 작용돼

기초단체별 인구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인구 순이동자 수’에서 완주군이 올 1분기 중에 전북을 넘어 호남권 41개 기초단체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에 따르면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2023년 1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 분석에 나선 결과 완주군의 ‘인구 순이동자 수’는 2002명을 기록, 전북 14개 시군을 넘어 호남 41개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아 인구 순이동자 수는 -1,764명에 달했으며, 광주지역 5개 구(-3,073명)와 전남 22개 시군(-806명)에서도 인구감소를 면하지 못했다.

호남에서 1분기 중에 네 자리 수 인구 순유입을 기록한 곳은 완주군이 유일했으며, 세 자리 수 증가도 김제시(669명)와 진안군(176명) 등 11곳에 머물렀다.

완주군은 지난 2021년 2분기에 인구 순이동자 10명으로 전환한 이후 같은 해 3분기에는 222명으로 육박했으며, 작년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774명과 904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구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완주군의 인구증가는 올 2분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완주군 조사 결과 올 4월중에 타 지역에서 완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전입

인구는 1,665명에 달한 반면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빼간 전출인구는 1,107명에 민족 559명의 전입초과 현상을 보였다.

완주군은 이런 사회적 인구 증가에 사람이 출생을 앞서는 자연적 감소(-51명)를 감안한 경우 올 4월 중에만 511명이 순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 4월 중에는 전체 13개 읍면 중에서 용진(363명)과 삼례(189명), 이서(19명), 소양(11명), 화산(11명), 동상(4명), 경천(1명) 등 무려 7개 읍면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등 인구증가가 일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세이어서 주목된다.

완주군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 입주 등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기대감, 인구유입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경제와 물류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기대감이 확산되며 최근에는 39세 미만의 청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떠난 사람이 되돌아오고, 수도권이나 충청권 등 타 시도 출신도 이주해와 살고 싶은 완주를 만드는 등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부장

김제시, 집중안전 합동 현장점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일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최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해 김광수 부시장과 관련부서 직원, 김제소방서, 민간전문가, 민간예찰단 등과 합동으로 벽골제에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해 6월 16일까지 이어지는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는 공무원과 민간예찰단 건축·토목·소방·전기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이 참

여했고 이날 김제시의 관광객이 많이 찾는 벽골제내 박물관을 대상으로 시설물 균열, 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을 점검했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 이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기관정의 안전책임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해 김제시 부시장 김제소방서, 민간전문가, 김제시 민간예찰단원들과

벽골제 농경사박물관 등의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세심하게 현장을 살폈다.

김광수 부시장은 “코로나 19 방역조치 완화 발표로 벽골제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고를 예방하는 사전점검 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생활주변 위험요인 발견시 즉시 신고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